

채성기박사는 1941년생으로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67~74),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74~78),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거쳤으며 향후 2년간 동 교육원장으로서 역임하게 된다.

또한 1989년부터는 AMERICAN NUCLEAR SOCIETY 한국지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NUCLEAR ENGINEERING & DESIGN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제56차 이사회

제56차 이사회가 2002년 2월 15일(금) 10:30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이사회에서는 3건의 보고사항과 1건의 의결사항이 심의되었다.

보고 중요사항으로서 협회의 심별마크, 시그니처, 로고등의 사용 지침에 대한 『한국방사성동위원소 협회 CI사용 지침(안)』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관리시스템발전방안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유통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실용화사업 추진 현황』이 보고되었다.

또한 제2대 동위원소교육연구원장으로 채성기 박사(전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를 선임 승인하였다.

## 과학기술부

###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제1차 방사능방재 및 환경 전문분과회의 개최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산하에 “방사능방재 및 환경” 전문분과를 신설하고 제1차 전문분과회의를 2월5일(화)에 과기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에서 개최하였다.

동 전문분과는 '99년 일본의 JCO 핵연료가공시설 임계사고와 지난해 9.11 미국 테러발생이후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달 1월19일(토) 신설되었다. 이로써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기존의 “원자로계통”, “방사선방호”, “부지/구조” 및 “정책/제도” 분과와 함께 총5개의 전문분과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각 전문분과에서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한다.

이번에 신설된 “방사능방재 및 환경” 전문분과는 박찬일 원자력안전위원(서울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국가 방사능방재대책의 주요 정책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전국토 환경 방사능감시에 관한 사항등을 다루게 된다.

제1차 회의에서는 환경방사능 감시망 확충계획, 방사능 비상장비 확보방안, 원자력시설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정 추진계획등을 심의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 □ 방사성의약품 제조, 제조기술을 개발기관에게 시설 임대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 장인순)는 원자력 연구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개발을 위한 차폐셀, clean room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방사성의약품을 생산 또는 개발 하려는 외부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획을 수립 했다.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개발을 위한 차폐셀 및 clean room의 복합시설의 건설 면적은 총 47평으로서, 동 시설을 임대제공하여 제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임차기관이 설치, 운영(제조) 하게 된다.

임차기관의 자격으로는 본 시설을 이용하여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또는 기업연합포함)이어야 하며, 임대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0년으로 하고 그 후에는 5년씩 연장한다고 한다.

신청 서류제출 기한은 3월 8일(금)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소홈페이지 (<http://www.kaeri.re.kr>)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임대계획'을 참고 하면 된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국가 과학기술인력 종합DB 구축 및 서비스 개시(<http://i2s.kisti.re.kr/KHuman>)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조영화)은 2000년 12월부터 각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하여 구축 및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 과학기술인력 DB들의 통합을 추진하여 2002년 2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7개 기관의 인력DB에 대한 통합을 완료하고 일반인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연구소 인력을, 한국과학재단은 이공계 대학인력,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교 인력,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지원 인력,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체 인력,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은 보건의료계 인력,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 인력의 DB를 보유하는 기관으로 역할분담

이 되었다.

국가 과학기술인력 종합DB시스템의 특징으로는 기관별로 운영중인 개별 인력DB의 기능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On-Line을 통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구축된 통합 DB에 데이터가 전송 되면 이를 비교 분석하여 간략정보(성명, 소속기관, 전공, 전자우편)와 현황정보를 보여주고, 상세 정보(기본정보, 소속기관정보, 전공분야, 학력정보, 연구정보, 학위정보 등)는 개별 인력DB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연결되어 보여주며, 종합DB에서 등록 및 수정 가능하고(One channel에 의한 one-stop서비스), 전공이나 기관명칭만으로도 인물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현황정보를 제공하여 기본현황정보(총괄현황, 학문분야별, 전공분야별, 소속기관별, 연령별, 직위별, 학위별, 지역별 등)와 2차원, 3차원 그래픽형태의 고급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월 7일 현재 인력DB 구축 인원은 149,940명이라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 □ '실험동물법' 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은 가칭 '실험동물법' 초안을 입안,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월18일(월)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동물실험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동물실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동물실험이 꼭 필요한지와 실험방법이 정당한지 등을 심사해 동물실험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실험동물을 사용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험동물에게 만성적 고통과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이 끝난 뒤에는 이 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동물실험실이 식약청의 관리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이를 폐쇄 조치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에 따른 인체 위험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시설과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